



목포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청사에너지 절감 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점심시간대에 어두운 사무실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눈물겨운 청사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감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이유있었네

공공청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목포시의 노력이 눈물겹다.

‘전국 244개 지자체 청사에너지 절감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목포시. 이 같은 화려한 영광엔 남다른 공직자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올해도 목포시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이삭줍기’ 시책을 내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점심시간(12시~오후 1시)대 사무실 전체 소등이다. 시산하 67개 실과소 가운데 사회복지과가 이 시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목포시 사회복지과 직원은 45명. 직원 대부분이 시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기 때문에 12시 30분이면 모두 사무실로 돌아온다. 어두컴컴한 사무실, 누구도 형광등을 켜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불편을 참는다. 일부 실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지만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온다.

특히 이 같은 절전시책은 야간근무시 빛을 발한다. 사회복지과는 업무 특성상 야간 근무가 많다. 예전에는 1~2명만 야간 근무를 해도 과 사무실 전체의 형광등을 켜지만 지금은 계(係)별로 스위치를 설치해 해당 계단 점등시켜

점심시간 사무실 전체 소등
야간 근무때는 일부만 점등
사무실 난방도 오후 5시면 끝
엘리베이터 오후 7시면 정지
5년간 교부금 147억원 성과

청사 에너지 절감에 일조하고 있다.

또 청사 내 사무실 난방도 오전 9시에 시작돼 오후 5시면 끝난다. 따라서 목포시 공직자들은 요즘 같이 일교차가 심한 날씨엔 두툽한 옷 착용이 필수다.

가장 애로가 많은 곳은 민원봉사실.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업무 특성상 오후 5시 이후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마다 민원봉사실 직원들은 민원인들에게 청사에너지 절약 시책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처절한(?) 투쟁을 벌인다.

청사 내 엘리베이터도 오전 8시 30분 운영을 시작해 오후 7시면 가동이 중단된다. 본관 3, 4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오후 7시 이후엔 계단을 이용해 퇴근한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가급적 모든 직원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시책도 시행 중이다. 야간 근무가 필요한 직원은 사전에 실과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절약 ‘이삭줍기’ 시책 덕분에 목포시는 최근 5년 동안 청사 에너지 절약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포상금으로 총 147억7000만원의 교부세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원받은 교부세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LED등 교체 등 시설확장에 재투자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억 5600만원(국비·시비 50%)을 들여 야외 주차장, 본관 옥상, 도시계획과 옥상 등 총 165kW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연간 12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3700만원이라는 ‘쓸쓸한’ 수익(전기세 절약)도 올렸다.

청사 에너지 절약 시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병술 목포시 회계과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교부세를 받는 데 직원 개개인이 일조를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청사에너지 절감 시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신안 도초면 여객선 운항 1년만에 재개

목포에서 신안군 도초면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지 1년여 만에 재개됐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신안군 도초면에서 목포시를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에 차도선형 여객선 충무훼리호가 지난 1일부터 취항했다”고 5일 밝혔다.

도초~목포 항로는 지난 2015년 12월 21일 기존 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한 뒤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12월 신규여객운송사업자 공모절차를 통해 유한회사 해진해운을 신규여객운송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면허를 발급했다. 이번 면허 발급에 따라 도초~목포 항로는 여객 103명과 소형차 기준 17대를 수송할 수 있는 적재능력을 가진 충무훼

리호(130톤)가 운항중이며, 1일 1회 왕복 운항하게 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운항재개로 도초면과 비금면 인근 소재 도서민이

육지로부터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농, 수산물 등을 출하하는 것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시 지방세 안정적 확보 총력전 펼친다

올 목표액 1680억 설정

목포시가 올 한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세원 관리와 세수 누락 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올해 목포시의 지방세입 목표액은 1679억5600만원. 이 가운데 도세가 715억, 시세는 964억56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2.8%(46억)가 증가한 수치다.

목포시는 올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원 세원발굴을 위한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지속 발굴 ▲제당량 반환 연지 및 제당액 징수

철저 ▲자동차세 연납제도, 제당자 패널티,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 강화 등 4가지 중점 시책을 선정했다.

특히 목포시는 지방세 고액 제당자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제당액 30만 원 이상인 자 중 신용가드사에 매출채권이 확인된 사람은 총 215명으로 987건에 1억9100만원이 제당됐다.

목포시 세정과는 이달 말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3월 중으로 제당자 주소지로 압류예고 통지서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압류와 추심을 단행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제당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강력한 조치도 취해진다.

현재 지방세 제당액 30만 원 이상인 자 중 신규 재산이 발견된 사람은 모두 113명으로 320건에 1억6700만원에 달한다.

한순덕 목포시 세정과장은 “압류 대상자에 대한 압류예고서 및 독촉장 발송과 함께 전화나 방문 징수독려 등을 병행해 제당처분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있다”면서 “제당액 최소화과 징수를 제고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정과는 올해 3~5월(1차), 8~9월(2차) 두 차례에 걸쳐 ‘과년도 제당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 전 직원 책임 징수제 운영 등 제당세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CCTV 통합관제센터 본격 가동...범죄 등 신속 대처

최근 목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여성 승객 살인사건으로 통합관제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목포시 통합관제센터는 사업비 15억 3600만원을 투입해 민원동 3층에 총면적 593㎡ 규모로, 관제실과 장비실, 영상분

석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방범용을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 공원·재해위험지구, 32개 초등학교 등에 설치된 CC-TV 888대를 통합 관리한다.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 29명과 경찰관이 4조 3교대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게 된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목포 가구 수

10만세대 돌파

목포시가 개항 이래 처음으로 10만 세대를 돌파했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신축이 잇따르면서 2016년 말 기준 관내 가구 수가 10만1180세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23만7739명으로 이 가운데 남자가 11만8474명이고 여자는 11만92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오는 23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대별 명부에 의한 현지 확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민원봉사실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 등록된 자의 재등록, 사망의심자로 조화된 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등의 작업을 벌인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에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상담문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이엠
ENERGY Marketing
www.emsolar.kr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